

'수비의 핵' 동강대 김민재도 날아오른다



오는 7~12일 강원 태백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대학축구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된 동강대 수비수 김민재. <동강대 제공>

7일 개막 아시아대학축구 대표 선발...스피드와 협력 플레이 강점
"생애 첫 태극마크 영광...피지컬 보완, 상대 압도하는 경기 펼칠 것"

"아시아대학축구대회를 통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게 돼 영광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제 플레이를 펼치며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동강대학교 축구부 김민재(2년·DF)가 오는 7일 강원도 태백에서 개막하는 '2023 아시아대학축구

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돼 지난 2일 대표팀에 합류했다.
'아시아대학축구대회'는 한국(A·B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태국, 대만 등 7개국 8개 팀이 출전한다.
김민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첫 국가대표다. 올 시즌 컨디션이 좋아 경기력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국가대표가 되니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188cm 큰 키에 중앙 수비를 담당하는 김민재는 스피드와 협력 플레이가 강점이다.
동강대 축구부 임종우 감독은 "민재는 시야가 넓어 경기 흐름도 빨리 파악하고 파이팅도 넘쳐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고 칭찬했다.
김민재는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원천)와 이름, 포지션, 체격, 경남 출신까지 여러 면에서 닮은 꼴이다.

이에 대해 김민재는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와 이름, 포지션이 같아서 평소 '롤 모델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특정 선수를 좋아하기보다 어떤 선수든 멋진 플레이를 보면 배우고 싶고 꼭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당차게 이야기했다.
김민재는 "수비수지만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한다. 피지컬을 보완해 상대를 압도하는 강한 플레이를 펼치고 싶다. 내년 2월 학교 졸업 후 좋은 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장애인펜싱 최건우, 세계청소년선수권 동메달

광주장애인펜싱협회 소속 최건우가 2023 부산 휠체어펜싱월드컵 및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건우는 지난 30일부터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 사브르(A/B등급 통합) U23 개인전에 출전해 8강전에서 태국의 쉐와외를 15-3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 만난 독일의 슈레이더 펠릭스에게 9-15로 패해 3위에 만족했다.
월드 어빌리티 스포츠(World Abilitysport)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27개국 300여명 세계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높은 랭킹 포인트가 주어진다.
또 대회 순위에 따라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 포인트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드 배정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번 대회의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총 14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최건우는 올해 10월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에도 국가대표로 출전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023 부산 휠체어펜싱월드컵 및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브르(A/B등급 통합) U23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한 광주장애인펜싱협회 소속 최건우(왼쪽 세번째)가 입상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259전 260기'

서연정 K레이디스오픈 정상에
KLPGA 가장 오래 걸린 첫 우승



서연정이 3일 '제12회 K레이디스오픈' 파이널 라운드에서 우승 확정 후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연정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60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서연정은 3일 경기도 용인시 썬포인트 컨트리 클럽(파72·6748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12회 K레이디스오픈(총상금 8억원)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더블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서연정은 노승희와 연장전을 치른 끝에 우승 상금 1억4천 4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2014년부터 정규 투어에서 활동한 서연정은 정규 투어 260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1995년생 서연정은 그동안 정규 투어에서 준우승 5번이 개인 최고 성적이었다. 올해도 5월 E1 챔피언 오픈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KLPGA 투어에서 첫 우승까지 가장 많은 대회를 치른 종전 기록은 2019년 11월 ADT 캡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안승이의 237개 대회였다.
노승희 역시 3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5.5m 버디 기회를 살렸더라면 연장 없이 첫 우승을 거둘 수 있었지만 결국 정규 투어 첫 준우승에 만족하게 됐다.
신인 황유민이 12언더파 204타로 단독 3위에 올랐고 박민지는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4위가 됐다. /연합뉴스

광주 대성초, 동우회장기 야구대회 우승



결승서 송정동초에 14-8 승
대성초등학교가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기를 차지했다.
대성초는 지난 1일 첨단야구장에서 진행된 제29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송정동초를 14-8로 꺾고 우승을 확정했다.
(사진) 첫날 화정초와의 경기를 8-1, 4회 풀드승으로 장식한 대성초는 둘째날 수창초와 승부치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6-5 승리를 거뒀다.
이어 마지막날 결승에서는 이제원과 문승원이 3안타를 기록하는 등 1회부터 4점을 뽑아내는 등

뜨거운 화력으로 송정동초를 꺾고 우승팀이 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7개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했다.
◇대회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이제원(대성초) ▲우수투수상 : 최무영(대성초) ▲타격상 : 전은성(7타수5안타·0.714·송정동초) ▲최다타점상 : 전은성(8타점·송정동초) ▲감독상 : 박이준(송정동초) ▲미기상 : 문승원(대성초) ▲감독상 : 신경호 대성초 감독 ▲지도상 : 정미숙 대성초 교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송진호 도체육회장, 전국체전 전남선수단 격려



송진호(뒷줄 왼쪽 세번째) 전남도체육회장이 지난날 31일 전남카누연맹 선수단 훈련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한달 여 남짓 남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훈련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송진호 회장은 지난날 31일 전남도대표 선수단의 훈련장을 찾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단을 격려했다.
송진호 회장은 이날 카누, 하키, 축구, 육상 대표 선수단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모습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선수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국체전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오는 10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전남선수단은 49개 종목 1951명(선수 1349명, 감독·코치·임원 602명)이다. 전국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총 2만8477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 신청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무더위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과 감독·코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남에서 열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바란다"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 2관 달짝지근해: 7510
- 3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4관 오픈하이머, 한 남자
- 5관 타겟
- 6관 오픈하이머, 조이 라이드
- 9관 엘리멘탈, 한 남자, 스파이 코드명 포춘
- 7관 싸네커를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 8관 싸네커를 콘크리트 유토피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극단 코끼리들이 왔다는 물결
일시 : 2023-09-15(금)-16(토)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야외)
문의 :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4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with 손연울
일시 : 2023-09-1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